2026 전국민 AI 활용사례 공모전 · 생활 속 AI 활용

설정이 어려운 아내와 어머니도 쓸 수 있게 — AI와 함께 만든 카드 혜택 앱 '카드모아'

카드 문자를 모아 카드별 실적과 다음 달 할인을 알려 주는 안드로이드 앱입니다. 앱은 AI와 대화하며 2주 동안 만들었고, 카드 설정도 AI와 대화해서 끝내고, 한 달 소비 분석도 AI가 맡습니다. 9월에는 실적 조건이 있는 카드 6장을 모두 채워 **10월에 74,000원 할인**을 받습니다.

왜 만들었나

카드 혜택을 챙기는 앱은 많지만, 대부분 처음 설정이 어렵습니다. 카드별 실적 조건을 찾아 넣고, 제외 항목을 고르는 일은 저에게도 번거롭고, 복잡한 걸 어려워하는 아내와 어머니에게는 더 그렇습니다. 그래서 "설정을 몰라도, AI에게 내 카드를 말로 설명하면 끝나는 앱"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

저는 신용카드를 7장 씁니다. 대부분 "전월에 30만 원 이상 쓰면 이번 달 통신비 1만 2천 원 할인" 같은 **전월 실적** 조건이 있고, 카드마다 목표를 다 채우면 한 달에 7만 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제는 "지금 어느 카드가 얼마나 찼는지"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. 가계부 앱은 쓴 돈은 보여 주지만, 카드별 실적과 제외 항목(통신비, 관리비 등)까지 따져 주지는 않습니다. 9월에는 할인 목표가 40만 원인 카드에 46만 원을 썼습니다. 넘친 6만 원은 다른 카드에 썼다면 다음 구간 할인을 노릴 수 있던 돈입니다.

AI와 대화로 만든 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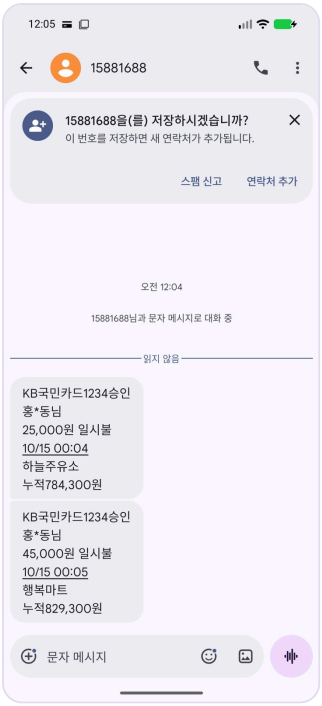
코드는 AI 코딩 도구(Claude)에게 맡기고, 저는 원하는 것을 말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"카드 문자를 모아서 카드별 실적과 다음 달 할인을 보여 주는 앱"을 말로 설명했고, 매일 써 보면서 불편한 점을 다시 말했습니다.

1. 9월 29일: 문자를 모으기만 하는 첫 버전
2. 10월 1~2일: 카드별 전월 실적과 이번 달 할인, 해외 결제 환율 환산, 보기 쉬운 화면
3. 10월 3일: 카드사 청구서와 앱 합계 대조
4. 10월 7일: "목표까지 5만 원 남음", "실적 달성, 다음은 ○○카드" 알림
5. 10월 9일: 매달 고정비, 카드사별 문자 형식까지 설정으로

2주 동안 일곱 번 고쳐, 지금은 제 폰에서 매일 돌아갑니다. 앱 아이콘도 AI 그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.

카드모아가 하는 일

- 카드 승인 문자·카카오톡 알림을 자동으로 모읍니다. 인터넷 서버 없이 폰 안에만 저장합니다.
- 카드마다 이번 달 실적과 목표까지 남은 금액을 막대로 보여 줍니다.
- 지난달 실적으로 이번 달 받을 할인을 계산합니다.
- 목표에 가까워지거나 달성하면 알려 줍니다.
- 카드사 청구서와 비교해 차이를 찾습니다.
- 한 달 기록을 정리해 AI에게 보내면, AI가 소비를 분석하고 청구서 차이의 이유를 설명합니다.



① 카드 승인 문자가 오면



② 카드별 실적과 이번 달 할인이 한 화면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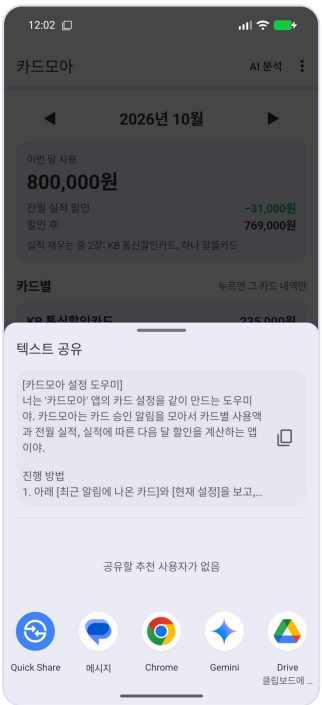


③ "목표까지 4만 원", "실적 달성"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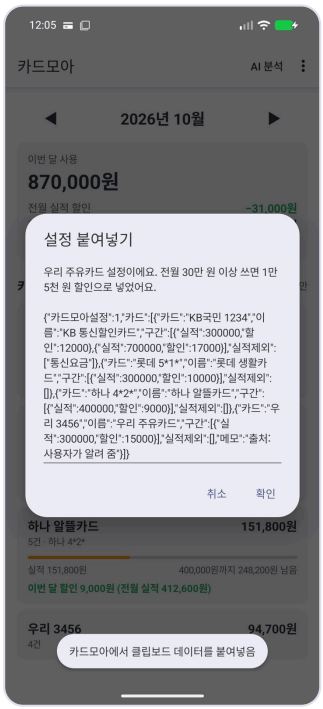
설정도 AI와 대화로

카드마다 실적 조건이 다르고, 문자 모양도 다릅니다. 그래서 카드모아는 설정을 사람이 채우지 않고 AI가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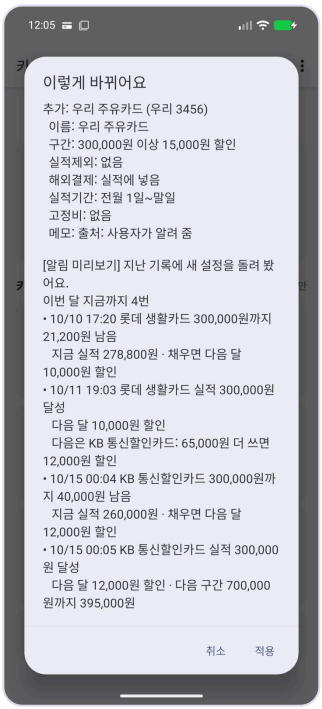
1. [AI와 카드 설정]을 누르면, 최근 3달간 본 카드와 안내문이 담긴 글이 만들어집니다.
2. 이 글을 아무 AI 채팅(저는 Gemini)에 붙여넣고 "내 카드는 하나 T&R이야"처럼 말합니다. AI가 카드사 페이지를 찾아 실적 조건을 출처와 함께 알려 줍니다.
3. AI의 답을 앱에 붙여넣으면, 무엇이 바뀌는지 쉬운 말로 보여 주고 확인하면 적용됩니다.



④ AI에게 보낼 설정 도우미 글



⑤ AI가 준 설정을 붙여넣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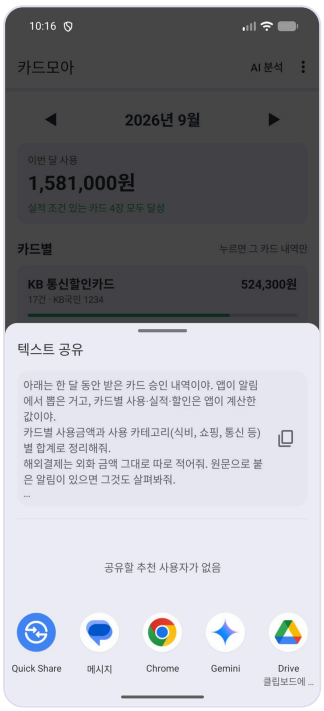
⑥ 바뀌는 내용과 알림 미리보기

제가 모르는 카드사의 문자 형식도 같은 방법으로 AI가 알려 줍니다. 다른 카드사 문자 6개로 시험했을 때 모두 제대로 읽었습니다. 코드를 고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카드에 맞출 수 있는 겁니다.

한 달 소비는 AI가 분석

앱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을 맡고, 설명하고 판단하는 일은 AI에게 맡겼습니다. 화면 위의 [AI 분석]을 누르면, 앱이 그달 기록을 AI가 읽기 좋은 글로 정리해 줍니다.

- **승인 내역**: 날짜·카드·가맹점·금액을 한 줄씩. 취소는 빼고 계산하고, 해외 결제는 그날 환율로 원화로 바꿔 둡니다.
- **앱이 계산한 값**: 카드별 사용액, 실적, 다음 달 할인, 아직 못 채운 카드.
- **청구서 대조**: 카드사별 "앱 합계 − 할인 + 연회비 = 예상"과 실제 청구 금액의 차이, 그리고 할부·해외 결제·고정비 목록.
- **앱이 못 읽은 문자 원문**과 결제 예정·연회비 같은 카드사 안내 문자.



⑦ [AI 분석]을 누르면 정리된 글을 AI 앱으로



⑧ 그 글을 받아 AI(Claude)가 만든 9월 대시보드

이 글을 아무 AI 채팅에 보내면, AI가 식비·쇼핑·통신처럼 **항목별 합계**를 내고 어디에 많이 썼는지 짚어 줍니다. 청구서와 금액이 다르면 연회비, 문자 수수료 300원, 할부 이자, 환율 차이처럼 **그 이유를 찾아 설명하고**, 매달 나가는 돈이면 고정비로 넣으라고 알려 줍니다. "대시보드로 만들어 줘"라고 하면 ⑧처럼 실적 진행과 항목별 합계를 한 장에 정리해 주고, "KB에 17만 원 더 모으면 할인이 1만 7천 원으로 오른다"처럼 다음 달에 할 일까지 짚어 줍니다. AI에게 보내는 요청 문구도 앱에서 고칠 수 있어서, "배달 음식이 얼마였는지 알려 줘"처럼 원하는 분석을 시킬 수 있습니다.

이 부분은 계산과 분석을 나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. 실적과 할인 같은 숫자는 앱이 규칙대로 정확히 계산하고, AI는 그 숫자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AI가 숫자를 잘못 더할 걱정이 없습니다. 기록은 폰 안에만 있고, 사용자가 [AI 분석]을 누르고 보낼 앱을 고를 때만 밖으로 나갑니다.

써 보니 달라진 점

6장 모두
9월, 실적 조건이 있는 카드를 전부 채움

74,000원
그 덕에 10월에 받는 할인

정확히 일치
하나·롯데 청구서의 할인액이 앱 계산과 같음

- 실적을 채운 카드는 알림을 보고 바로 다음 카드로 바꿉니다.
- 달말에 "어느 카드가 얼마 모자라"를 한눈에 봅니다.
- 10월 할인 내역: 유플KB 17,000 · 롯데 20,000 · 넥센 우리 18,000 · 관리비 우리 10,000 · 하나 9,000원, 현대는 혜택 조건 충족.
- 청구서와 앱 합계를 비교하면 차이가 하나 9,000원, 롯데 20,000원으로 나왔습니다. 앱에 넣어 둔 할인 금액과 정확히 같아서, 실적 규칙이 맞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우리카드 연회비 10,000원 같은 숨은 비용도 이렇게 찾았습니다.

가족도 쉽게 쓰는 이유

AI는 세 번 일합니다. 앱을 만들 때, 쓰는 사람의 설정을 도울 때, 그리고 한 달 기록을 분석해 줄 때입니다. 설정 화면이 어려운 가족도 "내 카드는 하나카드 통신비 할인 카드야"처럼 말만 하면 됩니다. 복잡한 일은 AI가 맡고, 사람은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.

사진 ①~⑧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상의 카드·이름·가맹점으로 만든 예시 화면입니다(이름 "홍*동"). 숫자 74,000원 등 '써 보니 달라진 점'은 실제 사용 기록입니다.